

NEWS

broadcasting
& technology

방 송 계 동 향

vol. 291

정리. 방송과기술 편집부

YTN, 신임 보도국장 임명



지난 1월 9일 '보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원과의 대화'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이후 1월 29일 정재훈 취재에디터가 보도국장 내정자로

지명되었다. 연이어, 2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보도국장 임명 동의 투표를 시행했고, 총 투표인단 373명 중 355명(95.17%)이 참여, 228명(64.23%)이 찬성해 보도국장 임명이 확정됐다.

정재훈 신임 보도국장은 1994년 YTN 공채 2기로 입사해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LA특파원), 편집부 등을 거쳐 2018년 10월부터 취재에디터로 근무했다.

국방홍보원, 박창식 신임 원장 취임

지난 1월 22일 박창식 제14대 신임 국방홍보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한겨레신문 정치·사회·문화부 기자, 논설위원 등의 주요 직위를 거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방정책 홍보에 관한 방향성과 추진력을 갖춘 최적임자로 평가받는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유익하고 흥미로운 국방안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방정책 성공에 기여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MBC 차기 사장 내정



박성제 전 MBC 보도국장이 차기 MBC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박성제 사장은 1993년 MBC에 입사하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를 거치고

2012년 공정방송 파업 과정에서 노조 파업 배후로 지목되며 근거 없이 해고되기도 했다. 차기 사장 선출에 시민평가단 참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사장 후보자의 정책 발표와 심층 면접은 MBC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되었다.

EB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비상주조 승계훈련 진행



EBS는 지난 2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송재난 전염병 확산으로 방송국 건물 폐쇄 시 신속한 방송 송출 대

응을 위해 KT와 함께 비상주조 승계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시나리오는 총 2단계로, '①전염병 확산으로 방송국 건물 폐쇄 및 비상송출 중계시설 가동', '②EBS 방송 신호를 KT 일산국사에 연결 및 전송'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점부터 30분 내 뉴스 및 방송소스 송출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EBS는 이번 승계훈련 결과를 내부 방송재난관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림으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OBS '뉴스 코멘터리 - 막전막후' 신설



OBS는 신설 프로그램 '뉴스 코멘터리 - 막전막후'를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한다. '뉴스 코멘터리 - 막전막후'는 정

치 뉴스의 전후 이면을 꿰뚫어 보는 본격 정치 토크쇼다. 진행은 감자 변호사, 쾌활한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지훈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의 훈훈한 입담으로 뉴스의 이면, 기사의 행간, 정치인의 애매모호한 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며 공감과 재미를 모두 잡을 예정이다. 또한 김지미 변호사, 장희영 시사평론가, 방송인 MC 장원이 전문가 패널로 나선다.

아리랑 TV, 정기 봄 개편

아리랑국제방송이 정기개편을 맞이하여 프로그램을 새로 정비한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한국의 목소리, Arirang’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정기 개편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 국격에 부합하는 글로벌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한다. Live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Skype 등 화상전화 솔루션을 통해 해외에 있는 전문가와 생방송 연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Simply Kpop 프로그램 출연자의 무대 뒤 모습을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 등 신규 프로그램을 런칭한다.

KT스카이라이프, 신규 UHD 채널 UMAX 론칭



KT스카이라이프가 신규 UHD 채널 ‘UMAX’를 론칭했다. 이로써 기존 5개 UHD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는 유맥스가 더해져 국내 최대 초고화질 플랫폼 최강자란 타이틀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맥스 채널은 홈초이스가 2014년 케이블TV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국한 채널로, 2020년 현재 스카이라이프와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KT스카이라이프가 신규 UHD 채널 ‘UMAX’를 론칭했다. 이로써 기존 5개 UHD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는 유맥스가 더해져 국내 최대 초고화질 플랫폼 최강자란 타이틀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맥스 채널은 홈초이스가 2014년 케이블TV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국한 채널로, 2020년 현재 스카이라이프와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기술 회의 개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기술 회의’가 지난 2월 14일 목동 방송회관 10층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방송통신망 융합을 통한 지상파 UHD 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 관계자가 모여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최동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과 박경모 캐스트닷에라(Cast.Era, SK텔레콤과 싱클레어 합작회사) CTO의 발표로 방송망과 통신망 연동 신규 미디어 서비스 현황과 관련 융합 기술이 소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의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이상민 전파방송관리과장을 비롯해 방송 3사 기술연구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상규 회장, 박민상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 ATSC 3.0과 5G를 이용한 미디어서비스의 현실적인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진행되었고, 서로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기술 회의’가 지난 2월 14일 목동 방송회관 10층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방송통신망 융합을 통한 지상파 UHD 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 관계자가 모여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최동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과 박경모 캐스트닷에라(Cast.Era, SK텔레콤과 싱클레어 합작회사) CTO의 발표로 방송망과 통신망 연동 신규 미디어 서비스 현황과 관련 융합 기술이 소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의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이상민 전파방송관리과장을 비롯해 방송 3사 기술연구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상규 회장, 박민상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 ATSC 3.0과 5G를 이용한 미디어서비스의 현실적인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진행되었고, 서로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2020년 2월 17일 현판식을 열고 독립재단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990년 교통방송으로 문을 연 뒤 30년만으로,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적인 출연기관으로 변경되었다. TBS가 독자노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방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방송의 특성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 가장 크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서울시에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거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마침내 결실을 이루었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도 임기제 공무원과 비정규직, 비정규 직군에서 민간 정규직 체계로 새롭게 바뀐다.

TBS 미디어재단의 첫 대표를 맡은 이강택 대표는 서울시에서 독립한 재단으로서 예산과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졌으며, 시민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미디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디어재단 TBS의 공식 출범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경과를 지켜본 후 추후에 시민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SBS,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배포



SBS는 현재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

내에 배포하였다. 이번 대응 매뉴얼은 사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외에도 기술국에서 운영하는 TV 송출/라디오/IT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작성되어 있으며, 전담 근무 및 비상 방송 송출, 원격 네트워크 근무 계획 수립을 통해 사내 확진자 발생/사육 폐쇄 시 즉각 대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영 본부에서는 예방수칙 포스터 및 예비 마스크, 소독제를 각 부서에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본사 출입문 통제소를 운영하고, 출입하는 사원에 대해 발열 체크 및 손 세정 후 입장을 안내하고 있다.